

북스

Books

근대의 '변강쇠歌'는 어디로 갔나

나비와 전사 고미숙 저음

우매한 국민을 계몽하는데 온 힘이 모아졌던 근대에는 사람이나 성(性)도 민족·국가와 같은 거창한 가치관 속으로 흡수되고 만다. 그 때는 그게 전부였다.

양반 사회이던 조선시대에 도 관소리 '여섯 마당' 중 하나로 살아남았던 하드코어 '변강쇠가'는 근대를 건너 뛰어 20세기에야 다시 태어났다. 18세기-근대-탈근대에 강쇠와 옹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그린비 펴냄)으로 유명한 고전평론가 고미숙씨가 이번엔 '나비와 전사'라는 책으로 '연암'과 '푸코'의 만남을 상상시켰다. 지난 10여년간 연암을 비롯한 전근대, 근대성 탐론, 푸코 등의 탈근대 사유를 공부했던 저자는 '근대의 시선으로는 결코 근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새로운 문제 의식을 짚어냈다. 책은 저자가 지난 2004년 하반기 미국의 코넬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했던 강의 '한국의 근대성'이 밑그림이 됐다.

한국의 근대성은 근대적인 인식론의 기반에 근거해 쓰여졌다. 하지만 거기에는 근대의 풍경, 기원과 사건이 넘쳤을 뿐 새로운 삶과 사유를 가능케 하는

비전이 없었다. 근대에서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 저자는 근대 밖으로 뛰어나와 '근대'를 이질적인 상황으로 밀어넣었다.

저자는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등에 실린 기사와 김옥균, 이인직 등 지식인의 글을 통해 한국의 근대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당시 계몽담론이 구축했던 '성적 판타지'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단, 신과 민족의 아래서 만!'이었다. 과부개가금지법이 철폐됐음에도 여성의 수절은 고매한 윤리로 칭송받았고, 논개와 춘향 같은 기녀들



나비와 전사



연암 박지원



미셸 푸코

연암과 푸코의 눈으로 본 한국 근대시대의 담론

이 애국심과 절개를 대표하는 스타로 떠올랐다.

근대 이후 우리 문화의 핵심 코드는 사랑(또는 섹스)이다.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사랑 때문에 죽고, 사랑으로서만 존재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장급이는 새로운 삶을 찾아 다시 저자거리로 나서서 독특한 결말을 맞는다. 이는 통상적인 해피 엔드가 아니다. 마치 옹녀가 강쇠의 시신을 뒤로 한 채 다시

길을 떠난 것을 연상시킨다.

책은 '시공간-인간-성-몸-삶-글쓰기'의 순서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푸코가 고고학적 탐사를 무기로 근대성의 지축을 뒤흔든 전사라면, 연암은 그 위를 사뿐히 날아올라 종횡으로 누비는 나비"라며 "근대성의 지축을 탐사할 때는 푸코가, 동아시아 지식사의 심연을 자백질할 때는 연암이 저자의 길잡이가 돼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저자는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자신만의 '경쾌한 수사학'으로 펼쳐 보이며 독자들에게 '이 활발발(活潑潑)한 다큐멘터리를 맘껏 즐기라'고 기원했다. <휴머니스트·2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록 음악 슈퍼스타

커트 코베인 평전

비틀즈 이후 가장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으며 1990년대 초반 전 세계 록 음악계를 평정했던 슈퍼스타 '너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의 전기 책으로 나왔다.



'평전 커트 코베인'은 미국의 음악·연예 전문가 출신 찰스 찰로스카가 커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모아 제공한다. 책에는 커트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저자의 발품은 책을 1990년대 록의 역사로 불리워도 좋을 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커트 코베인은 지난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세계적 스타가 된 뒤 1994년 4월 27살의 나이에 권총으로 자살한 비운의 록스타다.

<이룸·2만2천700원>

기도의 에너지는 믿음과 자비와 사랑

기도 틱낫한 지음

"종종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고, 온 몸의 세포가 진동하도록 기도했다고, 몸 안의 피 한 방울까지 짜내 기도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화'라는 책에서 "마음을 다스려 번뇌를 벗어나는 법"을 소개했던 세계적인 명상가이자 평화운동가 틱낫한(79) 스님이 또 하나의 명상록 '기도(Prayer)'를 펴냈다.

그는 이처럼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운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고 봉갈(奉囑)한다.

틱낫한 스님의 '기도'는 인간이 간절할 마음을 들이는 '기도'에 대한 종교와 종파를 넘어선 '명심보감'

이다. 기도하면 항상 떠오르는 의문, '진실한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기도는 올바른가. 내 기도가 신에게 전달됐을까' 등등 의문에 대해 잔잔한 울림으로 답한다.

그는 기도의 의미를 성찰하며 우리 삶이 고통받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를 함께 풀어나간다. 그는 종교를 불문하고 기도의 3요소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받는 대상, 기도의 결과를 받게 될 사람'으로 정한 뒤 기도에 필요한 힘(에너지)을 모으는 방법을 일러준다.

그는 "기도할 때 믿음과 자비, 사랑의 에너지는 전력 구실을 한다. 그러한 전력 없이 기도를 한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고 설법한다.

기도할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진정한 기도가 행복과 불행, 흥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진정한 기도는 이러한 상대성을 넘어선,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틱낫한 스님의 답은 명쾌하다. "기도로 새로운 에너지를 내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장을 열어준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 주고,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책 머리에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하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란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명진출판·9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워커홀릭 1.2=소빙중독에 걸린 여성을 유쾌하게 묘사한 '쇼퍼홀릭'으로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된 소와 킨 셀라의 최신작이다. 워커홀릭(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인 사만다는 런던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 변호사, 샐리이라는 전혀 몰랐던 그녀는 회사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시골마을로 도망쳐 가정부로 일하게 된다. <황금무연이·8천 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비 백가지=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백가지 시리즈 중 '우리 나비'편으로 나온 한국 곤충학회 이사 김성수 씨의 '나비 에디션' 30년 동안 나비를 연구하고 관찰해온 저자가 그동안 새롭게 확인된 나비의 종류와 습성을 추가하고 나비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와 경험을 소개한다. <현암사·2만9천500원>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커졌다=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박완서의 말밭이자 월간 '샘터'의 에세이 필자로 있는 호원숙 씨의 첫 산문집. 소박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대해 잔잔한 어조로 들려주고 있다. 아침 산책마다 만나는 자연에 대한 경탄, 생의 참미,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작품을 접하는 기쁨, 어머니 박완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샘터·9천 원>

▲외로워 하지만 슬픔이 터져 빛이 될 거야=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싱글맘 스토리' 등 시집과 에세이집으로 사랑을 받았던 신현림이 자신이 외롭고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위로의 시 87편을 선사한다. 단순한 시 모음집이 아닌 그녀가 오랫동안 노트에 기록해온 차곡차곡 쌓인 삶의 언어다. <갤러리·7천500원>

▲연애시대 1.2=연애는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인가. 헤어지고 시작된 이상한 연애. 현재 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애시대'의 원작이다. 작가 노자와 히사시는 이혼 후에도 서로에게 애뜻함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반복하는 남녀의 심리를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4회 시마세이 연애문학상 수상작. <소담·9천500원>

▲해인으로 가는 길= '집시꽃 당신'으로 대중에게도 큰 인기를 누렸던 도종환 시인이 '슬픔의 뿌리' 이후 4년 만에 새 시집을 펴냈다. 2년 전 지방으로 삶의 터전이었던 교단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지만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시에 담았다. <문학동네·7천 원>

▲음모자들= '바둑두는 여자'로 콩쿠르 데 리세앙 상(프랑스의 고등학교생이 가장 읽고 싶어하는 책)을 수상하고 '여왕 축전무후'로 세계적인 작가로 떠오른 산사의 새 장편소설이다. CIA요원 조나단, 중국 스파이 아이메이, 프랑스 점치판의 '젊은 피'로 행세하고 있는 무기 밀매상 '필립' 등 세 사람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들이 스텝 넘치게 펼쳐진다. <현대문학·9천 원>

봄 나들이는 순창 강천산으로 오십시오

54

순창 강천산

봄 축제

폭포

과일

꽃

음식